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확정

익산시, 전북도로부터 노선 변경인가 승인받아 위치는 사거리 옆 농협 앞 결정... 15년 숙원 해결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원광대학교의 15년 숙원사업인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문제를 해결했다.

원광대는 수도권 학생유지에, 익산시는 원광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익산시는 익산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노선이 원광대를 경유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노선 변경인가를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정류소 위치는 원광대사거리 옆 농협 앞으로 결정됐다. 익산터미널을 출발한 서울(남부터미널)발 시외버스는 하루 10회에 걸쳐 원광대 정문을 경유해 왕궁농공단지 방향으로 운행하게 된다.

익산시와 원광대는 2004년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 학생 유지를 통해 원활한 신입생 모집 및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류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익산지역 택시 및 시내버스 업계의 갈등과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해왔다.

익산시는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원광대가 위축될 경우 결국 익산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버스 및 택시 이용객도 줄어 운수업계도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설득해 왔다.

운수업계와 상생발전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결과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와 정류소 설치 확정까지 15년이 걸렸다.

시는 이날 중으로 정류소 및 승차권 발매기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시외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본격적으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소 위치도.

로 운영되면 원광대는 수도권 학생들의 신입생 유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 교직원 초빙 등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부권 시민들에게도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을 시장은 "원광대의 15년 묵은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문제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드디어 해결됐다"며 "지역사회 갈등이나 문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시는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지난 15일 개정면에 거주하는 문장주씨 덕에 민주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시범행사를 개최했다.

“독립·민주·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려요”

군산시, 시범사업 추진

개정면 문장주씨 덕에

명패 달아드려

군산시는 지난 3월부터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독립·민주·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지난 15일 개정면에 거주하는 문장주씨 덕에 민주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황선우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화에 앞장 선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3월에는 3.1절에 맞추어 군산시 독립유공자 29가구에 대하여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민주유공자 47가, 6월부터 2021년까지 국가유공자 3,966가구에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민주유공자들을 만나 직접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전기차 전문 기술인력 양성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기차 2차전지 자동화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 훈련생을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훈련은 시의 미래 성장동력인 전기차 산업에 대응해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이 5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군장대학교에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전문지식과 기술과 사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공업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Visual C 등이 진행된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교육 수료 즉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형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훈련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450-1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본격화

익산시, 배산근린공원 노인복지관 인근서 기공식... 내년 준공 121억5000만원 투입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서부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실내수영장) 건립 공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16일 건립부지인 배산근린공원 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이춘석 국회의원, 시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121억5000만원(국비 38

억 5500만원, 도비 30억7200만원, 시비 52억23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2017년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후 2018년 '설계공모'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이 진행됐다.

앞으로 '경관 및 디자인 심의',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다목적체육관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719㎡ 규모로 건립되며 성

인·어린이풀을 포함한 수영장과 농구장 크기의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노인운동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서부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를 시행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완공되면 양질의 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근대역사박물관, 동학농민혁명 기념 세미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8일 장미공연장에서 동학농민혁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에 맞추어, 시는 군산에서의 동학농민혁명 과정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군산, 동학에 물들다' 기획전을 앞두고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군산에서의 동학농민군 활약과 농

민혁명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 속에서 동학농민군소시민들의 삶, 동학농민혁명과 군산의 연결점을 찾는 시간들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학자로 저명한 '이이화' 선생을 초청해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 역사 속에서 '군산에서의 동학농민군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주월팰리스 귀금속보석

감정센터 입점업체 모집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주월팰리스 2층에 위치한 귀금속보석 감정센터에 입점할 업체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모집 공고한다.

신청 접수는 17일부터 시작하며 모집대상은 보석 감별·감정을 주 업무로 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표자 및 최대 출자자가 보석류를 판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제외된다.

입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국가예산사업 자문 '익산시 정책자문위'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미래를 견인할 핵심동력사업과 신규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열린 토론을 펼쳤다.

16일 익산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가예산사업 및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하반기 회의의 결과보고와 올해 익산시 중점정책과제, 2020년 주요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설명 및 자문,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 발표 및 토론,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신규사업 및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강대 위원장(원광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현실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장간편식(HMR) 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 핵심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2020년 주요 국가예산사업과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 토론을 벌이며 익산시 미래발전을 견인할 핵심동력사업과 신규 정책들에 대한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익산시는 신규 제안된 사업과 정책의 후속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 실시, 워킹페이퍼 작성과 전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시켜 신규 국가예산사업과 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위원회 개최와 관계없이 평소에도 익산시 발전과 직결되는 신규 사업과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